

강진군,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개장 준비위해 간담회

5월 7일 개장 예정...상인회·관계자 등 20여 명 협의 연평균 18만명 이상 다녀가며 총매출액 90억원 기록

강진군은 지난달 29일 2022년 제6회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개장을 위한 운영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개장을 5월 7일로 예정하고 놀토수산물시장 상인회 회원과 운영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2022년 개장 추진 일정 안내, 관계자 건의사항 등을 협의 및 정취하고자 개최했다.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2015년 5월 개장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18만 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매출액 90억 원(연평균 1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올해는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 전환과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가 예상돼 군은 오는 5월 7일 개장을 목표로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구 놀토수산물시장 상인회장은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의 재개장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에 감사드린다"며 "맛있게 먹고, 재밌게 즐기고, 값싸게 살 수 있는 놀토수산물시장을 만들어 활력이 넘치는 마량을 만드는데 힘쓰자"고 말했다.

임창복 해양산림과장은 "코로나 비상대응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



며, 마량미항 토요일음악회와 연계해 지역경제 다"고 전했다.
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강진=김영일기자

'장흥에서 살아보기' 예비 귀농인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대상 운영

장흥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일정기간 주거 공간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장흥한우협회가 맡았다.

참가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면접을 통해 현재 47가구 5명을 선정했다.

프로그램은 귀농인의 집 입주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된다. 장흥한우협회(회장 정연승)에서는 한우 사양기술 정보제공 및 사육현장 체험, 조사료 수확, 한우 육가공 체험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은 가구당 프로그램 종료 전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한다.

장흥=김도영기자

장흥군, 2023년 국고 지원사업 컨설팅 개최

정부예산과정 이해·국비확보 대응 전략 마련...주요 국고건의사업 10건 선정

장흥군은 1일 군청 회의실에서 정부예산과정 이해 및 국비 확보 대응 전략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주영 전라남도 재정협력관은 장흥군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국고 확보 대응 전략 교육을 실시했다.

이외, 한약재·해조류 활용 동물 K-푸드 육성 사업, 전남 소방안전체험관 유치 사업, 장흥 신북구석기유적 국립구석기 문화박물관 건립 등 주요 국고건의 사업 10건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진행했다.

군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에 국비사업을 건의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대처하기로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에 필요한 국비사업을 반드시 유치해 군민 소득 향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정책자문단 정기회의

강진군은 지난 1일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서 2022년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자문단 위원 및 관계자 30여 명이 모여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방소멸 위험 대응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강진 이미지 마케팅,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광역단위 교통망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으며, 군은 대책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구체화시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군 인구는 1965년 12만 8천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3만 4천 명이다. 산업화 이후, 많은 노동 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지역 발전이 정체되며 저출산 고령화로 가파른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용훈 정책자문단 단장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의 원인분석하고 우리 군 특화자원인 화훼, 청자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지역민 인구유출 방지 위한 정주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욱 군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강진의 인구를 지키는 것은 어렵다"며 "빈집을 활용한 청년층 인구유입,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전했다.

강진=김영일기자

내친구 디노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여행 "해남에서 공룡을 만나요"

해남공룡박물관 특별전 '공룡을 아시나요' 5월말까지 열려



해남군은 우리나라 대표 과학관인 국립부산과학관, 부산환경보존협회와의 협업전시를 통해 5월 31일까지 '공룡을 아시나요' 특별전을 갖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이 공룡에 대해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전시를 실시한다.

전시실에는 중생대 숲 속과 공룡계의 슈퍼스타인 티라노사우루스 체험을 비롯해 실물공룡알과 공룡분 화석을 확대경으로 관찰하고, 초식공룡의 이빨 등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또한 지구의 시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커

커이 쌓인 시간을 주제로 체험 시간테이블을 통해, 아이들이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시대별 주요 생물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다.

한편, 해남공룡박물관은 2007년에 개관하여 매년 20만여 명의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전문 박물관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익룡 발자국과 보행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새발자국,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1m 크기의 대형 초식공룡 발자국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룡화석지라도 잘 알려져 있다.

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